

F.B.I EXECUTIVE REPORT

ON GLOBAL BUSINESS AND ECONOMY



Hanyang Univ. School of Business

FOREIGN BUSINESS INTELLIGENCE



Contents October 10, 2012

Biweekly Report

- 2** 职场文化：狼道or羊道
 량첸원, from 廣州日報

- 5** From Tequila Crisis to Sunrise
 조은영, from The Economist

- 8** Germany Acts to Increase Limits on High-Speed Trades
 김효진, from The New York Times

- 10** The Soda Tax Gamble: Will It Really Make Us Healthier?
 조경흠, from Knowledge@Wharton

- 13** Wal-Mart Is Deleting the Kindle from Stores
 배인혜, from The New York Times

- 15** The Workplace of 2025 Will Be Wherever You Want It
 김형기, from BBC

Cover Stories & Special Report

- 18** 膨張するアジア新興国の家計債務
 현지윤, from Nikkei Business

- 22** Corporate Strategies for A Slowing China
 서지용, from Bloomberg Businessweek

职场文化：狼道 or 羊道

* 기사출처: 廣州日報 (2012.09.25)

* 요약자: 량첸원 (liangqianwensh@hanyang.ac.kr)

* 키워드: 늑대문화, 양문화

“늑대문화에서 양문화로 변하고 있는 중국의 직장문화”



- 직장문화는 형식적인 개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관, 비전 등이 접목되어 형성돼 각국별로 다양성을 지님
 - 직장문화는 기업문화에서 출발하여 구성원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과 내외부의 영향을 통해 형성되어 그 이상의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하는 것이 일반적
 - 세계 각국은 서로 다른 문화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장문화도 다양한 면모를

보임

- 유럽이나 미국의 기업들은 개인주의적 분위기가 강하며, 직급에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는 인간중심적인 직장문화가 형성됨
- 반면, 일본과 한국기업은 계층질서가 엄격하며 다소 전체주의적인 성향

□ 중국의 직장문화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중 대표적인 하나는 '늑대문화'

- 늑대문화는 늑대처럼 변화에 빨리 적응하고 기회를 잡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성과지향형 직장문화
 - 늑대와 같이 쉽게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필요로 함
- 늑대문화는 격렬한 중국의 경쟁시장에서 형성된 것으로, 대륙에 있는 대만기업들의 관리 모델이 변형된 형태
 - 이전의 많은 중국 기업들이 늑대문화를 선호

□ 그러나 이러한 늑대문화는 기업의 집단문화를 무시하고 직원 개인의 생존만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부각됨

- 사실상 기업은 구성원들이 개개인으로 분리되지 않고 한 몸처럼 협력하여 목표를 추구해야 하는 조직
- 따라서 늑대문화를 추구하는 기업은 단일한 조직으로서 기업이 갖는 의미를 간과하여 각 개인이 맡은 업무만 잘 수행하면 기업 전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다고 믿음
 - 조직 간 상하관계가 불분명하며 기업동료 간의 정이 없음
- 따라서 소위 늑대문화를 추구한 많은 기업들은 냉소적이고 인간성을 무시한다는 평가를 받음

□ 이와 같은 늑대문화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양문화'가 새로운 직장문화로 부상

- 양문화는 사람을 중심에 두는 기업문화로, 직원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일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며 사무실 환경에도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고 반영
- 양문화를 따르는 기업은 인권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원들이 직급을 떠나 서로를 존중하는 인간중심적인 가치를 추구

- 기업일정의 대부분을 직원투표로 결정
 - 직원들의 가족까지 챙기며 기업차원에서 배려
- 어려운 상황에서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같은 마음으로 함께 견딘다는 것이 양문화의 핵심

□ **1997년 금융위기를 겪으며 기업의 늑대문화가 양문화로 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각 기업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균형적인 자세를 견지할 필요가 있음**

- 늑대문화를 가진 기업들은 금융위기에 직면했을 당시 내부 경쟁의 과열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입음에 따라 인간을 중시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양문화를 가진 기업들이 각광받았음
- 그러나 단순히 유행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 기업의 비전과 분위기에 맞는 직장 문화의 선택이 필요 **FBI**

From Tequila Crisis to Sunrise

* 기사출처: [The Economist \(2012.09.12\)](#)

* 요약자: 조은영 (eunpure@hanyang.ac.kr)

* 키워드: 멕시코 은행, 성장

“데킬라 위기에서부터 현재까지 견고하게 성장해 온 멕시코 은행”

□ 멕시코는 1995년 일명 ‘데킬라 위기’가 닥쳤을 때 주변국으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았으나 현재는 상황이 역전됨

- 1995년 당시 폐소화가 상당히 평가절하 되어 있었고,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더 이상 멕시코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거부
- 그러나 현재는 오히려 멕시코가 자본 요구량이 엄격한 미국과 유럽 은행에게 대출해 주는 상황으로 변화

데킬라 효과 (Tequila Effect)

한 국가의 금융 위기가 주변국에 영향을 미쳐 실물 및 금융 부문을 침체시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지난 1994년 12월 외환 유동성 악화로 발생한 멕시코의 금융 위기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주변 중남미 국가들에 영향을 준 데에서 생겨난 용어로, 당시 채권자들이 '독한 멕시코 데킬라에 이웃나라들이 모두 취한 것처럼 경제 위기가 파급된다.'고 말한 데서 유래했다. 한편 데킬라 효과는 1990년대 후반 태국과 한국 등 아시아에서도 발생했다. 지난 1997년 태국은 외환 위기가 발생하자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 지원을 신청했고, 여기에서 촉발된 금융 위기가 필리핀, 말레이시아, 한국 등으로 급속히 확산돼 우리나라도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 멕시코 은행의 견고함 덕분에 멕시코에 진출한 해외 은행들은 주식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

- 해외 은행들은 멕시코 지사를 증권시장에서 매각시킴으로써 자본보유비율을 상당히 높이는 것이 가능
 - 이 주식은 주식 시장에서 장부 가치의 2배에 달하는 평가를 받음
- 신용평가기관 무디스는 현재 외국계 회사들의 멕시코지사 주식이 이전보다 위험

도가 감소하였다고 평가

- 스페인 산탄데르 은행의 멕시코지사는 주식 매각을 통해 ROE를 20%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으로 예측됨

□ 이와 같은 멕시코 은행의 견고함은 주변 국가들보다 나은 경제상황에 기인

- 지난 수십 년 동안 브라질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멕시코는 최근 몇 년간 경쟁국가들 보다 2배 빠른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해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부상
- 반면 멕시코의 경쟁국들은 중국의 정체된 성장 때문에 높은 성장을 기록하지 못함
 - 대표적 경쟁국인 브라질은 수출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


□ 대출에 대한 멕시코 은행의 엄격한 기준 역시 견고함에 이바지

- 멕시코의 민간 부채는 GDP의 20% 수준에 머무는데, 이는 주변국들에 비해 굉장히 낮은 수치
 - 브라질의 민간부채는 GDP의 50%를 넘어섬
- 상업 은행에서 대출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멕시코 전체에서 1/3 정도에 불과

□ 그러나 지나치게 엄격한 대출 기준에 대해 멕시코 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

- 대출 여부를 판단하는 신용평가제도는 멕시코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며 객관적인 지표가 부재한 상황
 - 일례로, 미화로 40달러 정도의 체납이 한 번이라도 있다면 대출이 불가한 경우와 같이 자의적이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
- 대출 승인이 나더라도 채무자들은 높은 금리에 직면
 - 신용 카드는 최고 40%의 이자율을 갖는 반면 은행 저축에 대한 이자율은 물가 상승률보다 낮음

□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볼 때, 은행과 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자세를 보일 때 멕시코 경제가 더욱 발전할 것으로 전망

- 은행은 기업들이 자금의 대부분을 은행에서 출자하는 상황을 인정해야 하고, 기업, 특히 가족승계 기업들은 은행이 요구하는 투명한 회계와 기업지배를 유지해야 할 것
-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고 지속적으로 대출이 증가한다면 이는 멕시코 경제에 거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 높은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 

Germany Acts to Increase Limits on High-Speed Trades

* 기사출처: [The New York Times \(2012.09.26\)](#)

* 요약자: 김효진 (khj1227@hanyang.ac.kr)

* 키워드: **HFT, EU, 독일**

“초단타매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독일 정부, 그리고 EU”

□ 전세계적으로 초단타매매(high-frequency trading, 이하 HFT)로 인한 경각심이 고취되는 상황에서 유럽의회는 EU단위의 HFT 규제안을 검토 중

- 지난 몇 년간 HFT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정으로 HFT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있음
 - 지난 8월, 컴퓨터 시스템 오류로 인해 4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본 나이트 캐피탈 그룹의 사례는 전세계에 HFT의 위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됨
- 유럽에서도 HFT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유럽의회는 EU단위의 HFT 규제안을 검토 중


□ 단일 국가로는 최초로 독일이 HFT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제재의 움직임을 보임

- 독일정부는 HFT에 대해 모든 HFT 트레이더들의 등록의무화, HFT로 거래되는 모든 금융상품들에 대한 표시의무화 등을 골자로 하는 추가적인 규제안을 승인할 예정
- 이는 최근 주식시장 급변동의 주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HFT에 대한 규제를 최초로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며, HFT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독일 정부는 최근 컴퓨터 기술의 발달이 주식거래의 본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을 인정하되,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규제를 통해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밝힘

□ 유럽의회는 HFT에 대해 독일정부보다 강력한 규제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HFT가 발생시키는 주식시장 변동을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주된 목표

- 독일 정부의 규제안이 HFT에 대한 감시권한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라면, 유럽의회의 규제는 HFT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한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이 규제안이 입법화하려면 유럽의회의 동의와 27개 가입국들의 승인이 필요
- HFT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포함한 이 규제는 유럽의회 산하 경제통화위원회에서 심층적으로 논의되는 중
 - 컴퓨터 거래를 통해 0.01초까지도 가능한 순간 거래시간을 최소 0.5초로 제한하거나, 주식거래시장에서 거래를 즉시 중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방안 등을 검토 중

□ 독일정부는 입법화 과정에서 모든 거래주체들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법안을 수립해야 할 것

- 개별국가로는 최초로 HFT에 대한 법률적 규제를 가하려는 독일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독일 국내 관계자들의 의견은 양분됨
 - HFT 전문 거래업체들은 난색을 표하는 가운데, 독일중앙주식거래소는 감시 권한 강화에 대한 찬성 입장을 밝힘
- 전문가들은 이러한 규제를 통해 HFT로 인해 발생하는 유동성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독일 정부는 입법화 과정에서 HFT 거래업체들을 포함한 모든 주식거래주체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법안을 제정하여야 할 것 

The Soda Tax Gamble: Will It Really Make Us Healthier?

* 기사출처: Knowledge@Wharton (2012.09.12)

* 요약자: 조경흠 (polarbear5@hanyang.ac.kr)

* 키워드: **가당음료세, 탄산음료 금지**

“탄산음료 금지와 가당음료세에 대한 논란”



□ 최근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탄산음료 금지법(Soda Ban)을 제안하였으며, 타 도시들도 비슷한 대안을 제시하며 가당음료 소비를 줄이고자 함

- 이 법안은 식당, 이동식 노점, 경기장 등에서 판매되는 16온스(480ml) 이상의 가당음료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 골자
 - 가당음료는 청량음료, 스포츠 음료, 설탕이 첨가된 커피와 차까지 모두 포함
 -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음료수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되어 논란의 여지가 있음

- 가당음료가 비만과 당뇨병을 유발시키고 건강보험료를 인상시키는 원인으로 대두되면서, 미국 내 주요 도시들이 가당음료 소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

□ 이와 같은 세금이나 금지안들을 통해 가당음료 소비 감소와 세수의 증가라는 두 마

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정책은 시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킬 수 있고, 음료 가격을 올림으로써 가당음료 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또한 예산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도시들의 경우, 추가적인 세금 부과를 통해 충분한 세수 확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

□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국민들의 반대, 세수 확대에 인한 부작용을 이유로 들며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평가

- 정부의 과도한 공공보건 정책은 여론을 악화시켜 오히려 국민들이 정책을 반대하게 만들 수도 있음
- 또한 세금으로 인한 음료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의 식품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작용을 유발시키며 재정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판단
- 코넬대학교의 한 전문가는 1991년 등장했던 맥도날드의 건강 메뉴 'McLean'의 실패 사례를 제시하며 성공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

□ 한편, 캘리포니아의 리치몬드 시에서는 기존과는 조금 다른 과세 방법을 제시

- 기존 30개 주는 평균 5%의 판매세를 책정하고 있으나, 리치몬드는 온스 당 1페니의 소비세를 부과하여 이를 사업자 등록비로 납부하도록 함
 - 같은 주의 엘몬테 또한 이 법안을 투표에 상정
 - 이를 통해 상인이 세금을 스스로 부담할지 소비자에게 전가할지에 대한 선택이 가능
- 예일대의 전문가는 소비세가 판매세에 비해 가당음료 소비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
 - 소비세의 경우 음료의 가격에 즉시 반영되어 소비자가 경각심을 더 크게 느낄 것이기 때문

□ 미국 음료협회는 가당음료에 대한 정책에 반대하며 거액을 들여 반대 캠페인을 실시하고 소송을 제기

- 수많은 불량식품들 중에서 음료에만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은 부당하다고 주장
- 저소득층 피해를 유발하고 지역 상권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매상들이 의도적으로 야채나 다른 식료품에 세금을 전가시키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
- 거대 음료회사의 경우 유동적인 대응을 통해 정책의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제기됨
 - 펩시의 경우, 가당음료 대신 물과 같은 비가당음료 생산 라인으로 전환함으로써 이윤을 보전할 수 있기 때문

□ **국가 공공보건 정책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여전히 전문가들은 다양한 견해로 정책을 비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됨**

- 30년 전에 비해 미국인들은 오히려 500kcal를 더 섭취하고 있으며, 단 하나의 식품에 대한 규제가 비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재차 강조
- 담배에 대한 세금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지만, 음료에 대한 사람들의 견해는 다양하여 사회적 합의가 어려움
 - 정책이 개인의 식생활을 지배하려 할 경우 사람들은 불만을 제기할 것
- 과거 통계에 따르면, 사람들이 다른 상품으로 대체소비를 할 수 있으므로 정책의 실효성이 반감될 가능성도 존재 **FBI**

Wal-Mart Is Deleting the Kindle from Stores

* 기사출처: [The New York Times \(2012.09.21\)](#)

* 요약자: 배인혜 (ihgrace@hanyang.ac.kr)

* 키워드: 월마트, 아마존, 소매업체 경쟁

“킨들 제품 판매를 중지하기로 결정한 월마트, 아마존의 성장을 경계하는 것인가”

□ 타겟에 이어 월마트가 아마존의 태블릿PC 킨들의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며 소매업체와 기술업체 간의 전형적인 관계 변화 양상이 드러나고 있음

- 월마트의 결정은 아마존이 소비재 시장에서 위협적인 경쟁업체가 되고 있음을 알리는 증표
 - 분석가들은 월마트가 아마존의 성장을 견제하여 킨들 대신에 애플, 구글, 반스앤노블, 그리고 삼성의 태블릿PC를 판매할 것이라고 예상
- 이전에는 타겟 역시 킨들의 판매를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Best Buy, Staples, Office Depot을 포함한 다른 소매 상점들은 판매를 지속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월마트와 아마존의 관계 변화는 협력적인 관계에서 급격하게 경쟁적인 관계로 변화하는 소매업체와 기술업체 간의 관계 특성을 잘 드러내는 예시

□ 구경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하고 구매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하는 최근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가 이와 관련됨

- 새로운 킨들 파이어 모델은 웹 브라우저 기능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서의 온라인 쇼핑이 더욱 용이해짐
 - 킨들의 구 모델은 흑백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로 전자 책을 읽는 용도로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소매업체에 위협적이지 못함
- 킨들 파이어 모델은 전자 책뿐만 아니라 영화, 게임, 쇼핑 등 모든 카테고리를 수용할 수 있는 쇼핑 플랫폼으로 등극
- BCG의 한 재무 분석가는 월마트의 킨들 판매가 소비자들의 아마존 온라인 쇼핑을 증가시켰다고 주장
 - 아마존의 직원조차도 킨들이 아마존의 판매량에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월마트의 결정에 동의

- 따라서 킨들 제품의 보급이 증가할 경우 이러한 소비자 행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 게다가 킨들을 포함한 태블릿PC 제품들은 이윤이 많이 남지 않아 소매업체들에게 필수적인 판매 품목이 아님

- 애플을 제외하면 특별히 대량으로 판매되는 태블릿PC가 없기 때문에 킨들의 판매 중단이 월마트의 매출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월마트의 결정은 수익과 관련된 실질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아마존의 성장을 견제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됨

□ 이로써 타 소매업자들이 킨들 제품에 등을 돌리게 된다면 아마존의 성장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대부분의 소매업체들은 킨들 판매를 계속할 예정

- 현재 킨들의 보급 상황은 아마존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소매업체를 통한 지속적인 판매가 중요
 - 매장에서 킨들의 진열대가 줄어들면 제품 노출이 줄어들어 판매가 급감할 것
 - 결국 물리적인 전시 공간을 잃어 아마존 쇼핑사이트와의 연결도 줄어들 것
- 하지만 킨들은 가장 먼저 출시된 전자 책 리더기이며, 다양한 가격대의 모델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계층의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음
 - Best Buy, Office Depot, Staples는 이러한 이점을 취하기 위해 아마존과의 관계를 지속하며 킨들을 판매할 것이라고 밝힘

□ 결국 타 소매업체들의 킨들 판매 지속은 소매업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근시안적인 전략이라고 평가되며 타 업체들이 곧 월마트의 결정을 따르게 될 것으로 전망

- Best Buy는 자 브랜드와 동시에 태블릿을 중심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당장의 판매량만을 생각한 마케팅 전략
- 킨들과 같은 태블릿 제품이 널리 보급되면서 소매업체의 사업에 위기가 올 것이므로 곧 모든 소매업체들이 아마존에 등을 돌릴 것으로 예측됨 **FBI**

The Workplace of 2025 Will Be Wherever You Want It

* 기사출처: [BBC \(2012.09.20\)](#)

* 요약자: 김형기 (curiaroman@hanyang.ac.kr)

* 키워드: 미래 직장, 기술 진보

“기술혁신으로 인해 변화된 2025년 미래 직장의 모습”



□ 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5년의 직장개념은 상사 및 동료와 만나지 않고도 업무를 볼 수 있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런던의 임페리얼 칼리지, MIT, 워싱턴대학교의 표본 조사 결과, 한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러한 변화가 실현될 전망
- 홀로그램 화상회의와 프로젝트 가상 시운전의 활용으로 사무실의 고전적인 업무 양식이 바뀔 것으로 예상됨
 - 일례로, 디지털 기술이 가미된 페인트는 단 한 번의 터치로 3D 아바타를 공간에 투사할 수 있게 함
 - MIT 미디어연구소는 물리적인 표면이 동작기반의 명령에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연구 중

□ 또한 기술의 진보로 인해 노동시장의 변화와 업무장소의 확장이 예측됨

- 기술의 진보는 노동자들을 각 프로젝트에 필요한 짧은 기간 동안만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

- 노동자들은 마치 벌과 개미처럼 세계를 가로질러 디지털로 조직화될 것이며 이는 노동력의 분산을 의미
- 또한 기술은 노동자뿐 아니라 기업에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위치에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
 - 글로벌 회계법인 PWC는 주요 업무장소가 2020년까지 5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요약하자면, 자료기반 기술의 진보는 현존하는 업무 패턴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것

□ 이미 이러한 변화들은 진행 중에 있으며, '검용'과 '통합화'를 두 축으로 하고 있음


- IBM에 따르면, 내년까지 12억 개의 브로드밴드들로 연결된 개인용 전자장치들이 800만 가구 이상에 보급될 예정
- 개인용 장치의 확대를 이를 업무에도 검용하는 것 역시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네트워크 칩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을 의미
 - 핸드폰, 구글, 콘택트 렌즈 등은 제각기 컴퓨터의 역할을 수행하며 네트워크 칩으로 상호 연결되어 새로운 업무 공간을 창출

브로드밴드 (Broadband)

광대역 통신이라는 말로 하나의 전송매체에 여러 개의 데이터 채널을 제공하는 정보통신 관련 용어이다. 인터넷 접속뿐만 아니라 음성과 데이터 통신 역시 점차 이동전화, 휴대형 디지털 장치, 무선네트워크상의 컴퓨터 같은 광대역 무선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무선 광대역 접속은 인터넷 접속서비스 중 가장 빨리 성장한 유형으로 연간 28%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출처: 위키백과

□ 이와 같은 미래의 기술혁신은 커뮤니케이션 인프라의 지원을 받아 현존하는 많은 업무상 제약들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으로 예상됨

- 커뮤니케이션 인프라 구축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혁신이 기대되며, 이는 업무 환경을 포함해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통째로 변화시킬 것
- 또한 기술의 진보는 현재 업무 환경의 많은 제약들 중 하나인 노동시간을 단축해 줄 수 있을 것
- 온라인 사회의 통합이 인간을 구속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는 견해도 있지만, 일부는 전원버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자율성을 근거로 이를 반박하며 인간을 더욱 자유롭게 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주장 

膨張するアジア新興国の家計債務

* 기사출처: [Nikkei Business \(2012.09.03\)](#)

* 요약자: 현지윤 (ozma@hanyang.ac.kr)

* 키워드: 아시아, 가계부채 증가

“팽창하는 아시아의 가계부채, 구(舊)미와의 비교를 통한 위험성 분석”

□ 세계 금융위기에 타격을 입은 아시아 국가들은 활발한 개인소비를 바탕으로 한 디커플링을 시도했고, 그 결과 높은 성장세를 지속

- 수출의존도가 높았던 아시아 국가들이 내수 확대와 지역 내 무역을 통해 디커플링을 실시하면서 아시아 주요국의 연평균 성장률은 6% 전후를 유지
- 디커플링의 원동력은 개인의 활발한 소비이며, 소비 증가는 1인당 소득 상승과 중산층의 증가에 기인

디커플링 (Decoupling)

동조화(coupling)의 반대 개념이다. 한 나라 또는 일정 국가의 경제가 인접한 다른 국가나 보편적인 세계경제의 흐름과는 달리 독자적인 경제흐름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크게는 국가경제 전체에서, 작게는 주가나 금리 등 국가경제를 구성하는 일부 요소에서 나타나기도 한다. 수출과 소비, 주가하락과 환율상승 등과 같이 서로 관련 있는 경제요소들이 탈동조화하는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출처: 두산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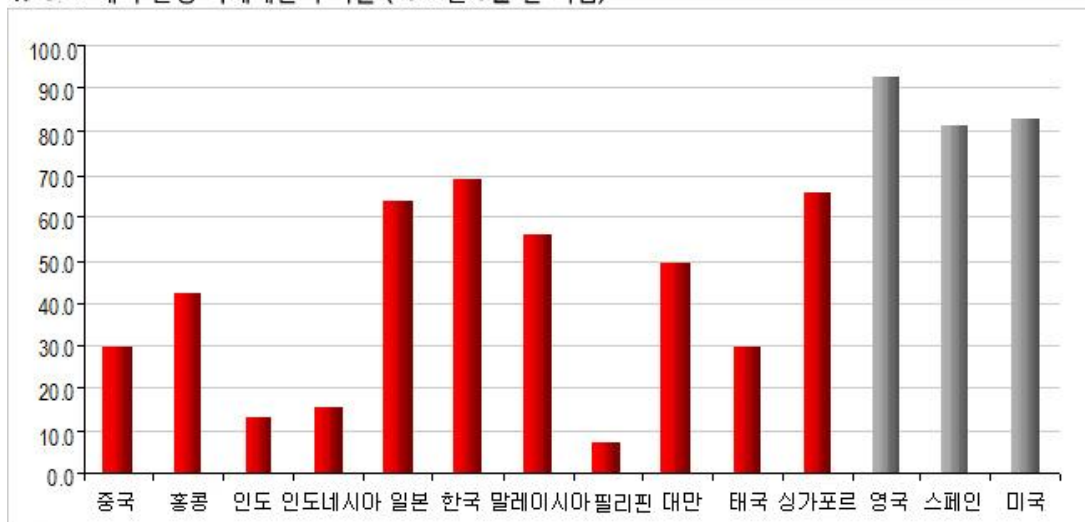
□ 그러나 개인소비와 함께 아시아 각국의 가계부채도 확대되어 이에 대한 우려 역시 커짐

- 한국의 경우 2010년 가계부채가 GDP의 81%에 달해 그리스(61%)를 상회하고 스페인(85%)의 수치에 근접
-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가계부채 급증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

□ 금융위기 전 구미지역과 현재 아시아의 가계부채 증가 현상에는 근본적 차이가 있으므로 위험성은 적지만 아시아 부채에서 과소평가된 부분도 존재

- 금융위기 전 미국에는 저소득 채무자가 많았으나, 아시아의 채무자는 비교적 고소득층이라는 점에서 약간 상이
- 아시아에서는 주택론의 주택담보대출비율이 낮아 미국에 비해 부동산시장 침체의 영향이 작고, 은행 자기자본비율 수준이 양호해 구조적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음
- 그러나 현재 구미에 비해 아시아의 가계부채 비율이 낮다고 해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음
 - 2012년 3월 말 시점 각국 GDP 대비 은행 가계대출액 비교 결과에 따르면, 영국, 스페인, 미국을 이어 아시아 국가들이 높은 순위를 기록

1. GDP 대비 은행 가계대출액 비율 (2012년 3월 말 시점)



주소: CEIC, HSBC

□ 구미지역에 비해 아시아의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데에는 가계부채 측정 방법이나 1인당 GDP와 같은 외부적 요인도 영향을 미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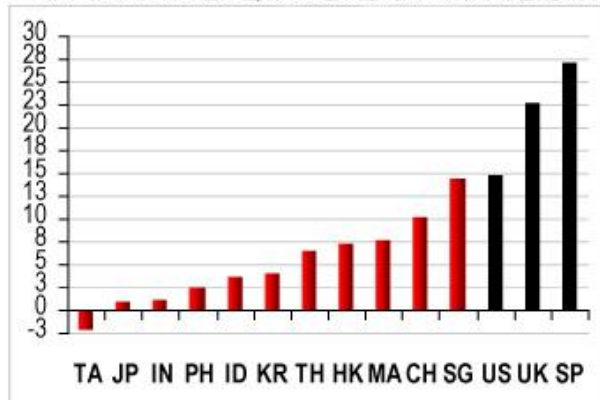
- 먼저 구미지역과는 달리 아시아에서는 은행대출만 가계부채로 취급하기 때문에 가계부채 비율이 낮은 경향을 보임
 - 구미지역은 비은행 대출규모가 크기 때문에 가계부채에 포함하나, 아시아에서는 비은행 가계대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제외
 - 말레이시아의 가계대출 규모는 GDP 대비 55%지만, 비은행 용자를 포함하면 GDP의 76%일 것으로 추산

- 국가 간 1인당 GDP 차이를 감안하면 아시아 가계부채가 구미지역과 비슷하거나 이를 상회
 - 인도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2.8%지만 미국과의 1인당 GDP 차이를 조정하면 미국보다 6.5% 높음

□ 또한 아시아 국가의 가계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금융위기 전의 구미지역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국가도 존재

- 아시아 가계부채는 구미보다 상대적으로 적지만, 최근 몇 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나타냄
- 싱가포르의 2008~2012년 가계부채 비율 증가는 금융위기 전 구미지역과 비슷한 수준
- 그 외 아시아 국가가 세계 금융위기 전 미국과 비슷한 양상으로 가계부채 증가

2. 유럽/미국의 04년 1분기~08년 1분기와 아시아 국가의 08년 1분기~12년 1분기의 가계부채율 증가폭



3. 유럽/미국의 05년 1분기~08년 1분기와 아시아 국가의 09년 1분기~12년 1분기 가계부채율 증가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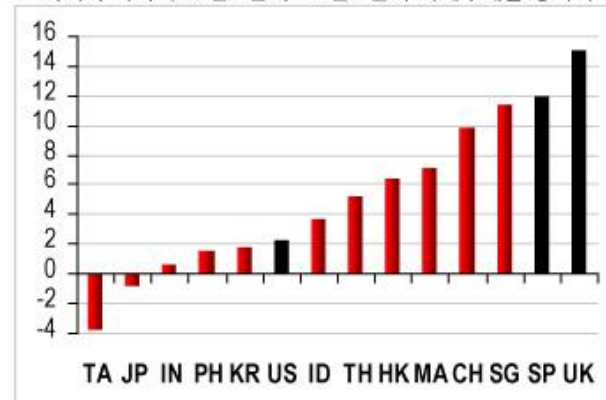



그림2, 그림3의 출처: CEIC, HSBC

CH(중국) / HK(홍콩) / ID(인도네시아) / IN(인도) / JP(일본) / KR(한국) / MA(말레이시아) / PH(필리핀) / SG(싱가포르) / SP(스페인) / TA(대만) / TH(태국) / UK(영국) / US(미국)

□ 최근 아시아 국가들은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했으나, 규제로 인해 오히려 개인소비와 성장률이 감소할 수 있어 신중함이 요구됨

- 각 국가는 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신용 카드 규제를 강화하거나 구매계약 방식을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
 - 올해 말레이시아는 신용 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저소득 이용자는 월 수입의 2배로 사용금액을 제한했으며, 1인당 2장만 소유할 수 있도록 한정

- 인도네시아는 자동차 구입 시 20~30%의 계약금 지불을 의무화
- 그러나 대출 규제가 개인소비에 영향을 주어 내수와 성장률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정부는 규제에 있어 심사숙고 해야 할 것
 - 현재 아시아의 왕성한 개인소비가 활발한 대출활동에 근거하기 때문 

Corporate Strategies for A Slowing China

* 기사출처: [Bloomberg Businessweek \(2012.09.24\)](#)

* 요약자: 서지용 (jonglelsta@hanyang.ac.kr)

* 키워드: 중국경제, 저성장

“저성장 국면으로 진입한 중국 경제”

□ 중국 진출 해외 기업은 고속 성장하던 중국 경제가 저성장 시대로 진입하고 있는 현 상황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지난 15년간 중국에의 투자 및 수출로 기업들이 호황을 누리던 시대가 막을 내리고 있고, 연간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이던 중국의 GDP 성장률은 이제 6-7%수준에 정체
- 이러한 성장률은 중국을 2025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큰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킬 수 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것으로 판단됨
 - 기업의 입장에서 GDP 성장률 10-11%와 6-7%의 시장 상황은 매우 다름

□ 중국 내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가 감소함에 따라 성장률도 동시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은 2000년도에 국내총생산의 34%를 고정자산에 투자하였으며 2011년에는 이를 44%까지 확대
 - 해당 기간 동안 연평균성장률은 12.7%이었고 국내총생산은 10.4% 성장
- 그러나 올해는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지 않고 투자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성장률도 제자리 걸음 할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성장률의 정체는 2020년 이후까지 이어질 전망
- 따라서 이제는 중국이 아직까지도 고속도로, 발전소 등과 같은 인프라의 건설이 필요한가를 평가하는 단계가 아님
 - 중국이 이미 건설한 인프라를 고려해 볼 때, 충족되지 않은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한지 판단해야 함

□ 한편, 중국의 항공 및 신 공항 수요 저하에 따라 그 성장 또한 정체되고 있음

- 중국의 항공산업 성장률은 2000-2005년 사이에 17.2%를 기록하였으나 2005-2010년에는 14.4%로 감소
 - 보잉은 2011-2031년 동안 이 성장률이 6.9%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
- 이는 중국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수요를 책임질 대부분의 대형 공항들을 이미 완공한 상태이기 때문으로 판단됨
 - 또한, 지방 공항의 건설이나 현존하고 있는 공항의 확장 공사를 통해 추가적인 수요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
- 따라서 현 중국 경제의 저성장과 함께 나타나고 있는 항공 산업의 낮은 성장률로 인해, 기존의 공항과 신축 공항에 대한 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

□ 중국의 고속도로, 항만, 발전소 및 부동산 투자에도 위와 비슷한 논리가 적용됨

- 중국의 도시화가 변곡점을 지남에 따라 미래에는 도시화의 속도가 감소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항공 산업과 마찬가지로 도시화의 속도 저하에 따른 투자 부진 예상
-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정부 임대 주택을 포함한 5천만 채의 새로운 주택을 소규모 도시에 건설하여 저소득층에 지급할 계획
 - 고소득층을 위해 지어졌던 주택들에 비해 저소득층의 경우 최소한의 그리고 저렴한 가전 제품을 사용하게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추세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급격한 둔화를 암시하며 가전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에도 큰 타격을 가져올 전망

□ 제조업 투자 중 가장 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또한 성장률의 저하가 우려됨

- 2000년도와 2010년 사이 중국의 자동차 시장은 매년 36.8% 성장해 왔지만, 중국의 높은 인구 밀도를 고려해 볼 때 중국의 자동차 보급률은 G7 국가의 평균인 70%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
 - 중국 자동차 시장은 매년 1,400만 대의 차량을 판매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

- 현재 중국의 자동차 보급률은 5%에 불과
- 긍정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보급률이 2030년과 2040년에 각각 30-40% 그리고 50%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이러한 수치로 보아, 향후 10년 중국의 자동차 시장이 5-6%수준 이상으로 성장하는 것은 비현실적

□ **마지막으로 중국이 강점을 보이던 수출 산업도 이미 구조적 한계에 부딪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음**

- 전세계를 무대로 한 중국 수출 점유율은 2000년 3.9%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10.4%까지 폭발적으로 성장
 - 이 시기에 중국의 수출이 전세계의 수출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성장
- 그러나 중국 내 인건비가 상승하고, 중국과 비슷한 경제 규모의 국가들보다 물가 상승률이 증가
 - 이로 인해 저비용을 앞세운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인도와 같은 국가들에게 수출 강국의 자리를 내어주고 있는 실정
- 자본기술집약적 제품 시장 또한 중국 내에서의 비용 상승으로 인해 타 국가로의 이전이 예상됨
 - 미국과 유럽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수출 기업은 멕시코나 동유럽 근해 지역으로의 이전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

□ **앞으로 중국은 저성장 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중국 경제가 수출에서 큰 성장을 달성하려면 미국, 유럽, 일본, 브라질과 같은 국가에 장거리로 수출이 가능해야 함
 - 그러나 정치 및 경제적인 장벽 때문에 중국이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존재
- 하지만 더디게 성장하는 중국도 기업들에게 아직까지 많은 기회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

- 지난 30년 동안 중국 정부는 정부에서부터 하달되는 하향식 투자 및 수출 방법으로 기록적인 성장을 달성
- 그러나 이제 투자자들은 그들이 익숙해져 있던 성장 속도보다 현저히 저하된 성장속도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 수립에 힘써야 할 것 **FBI**

FBI는 한양대 경영대학의 비상업적 지식봉사 동아리로,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경영 이슈에 대한 교내 상호 학습을 위해 동아리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만약 외부에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 교외 지식봉사차원에서 무상으로 공유하고는 있으나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보고서 구독신청 및 변경 (fbi.hanyang@gmail.com)

Advisor: 이윙희,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victory@hanyang.ac.kr)

Editor in Chief: 김한결 (rocky87@hanyang.ac.kr)

Associate Editor: 박나현 (nh313131@hanyang.ac.kr)

Copy Editor: 김시연 (rea1200@hanyang.ac.kr), 김지연 (jiyeon7303@hanyang.ac.kr), 이창석 (laims2@hanyang.ac.kr)